

제9회 성 천 상

THE 2021 SEONGCHEON PRIZE

| 주최 : 중외학술복지재단

| 주관 : 성천상위원회

“생명존중을 실천하는 참 의료인을 찾습니다”

중외학술복지재단은 1945년 JW중외제약을 창업한 故성천 이기석 선생의 생명존중정신을 전하고, 인류의 건강복지증진 기여를 위해 2012년 성천상을 제정했습니다.

본 상은 국적을 초월하여 질병과 빈곤으로부터 고통 받는 이웃들에게 참 인술을 펼쳐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헌신한 **의료인과 단체**를 추천받아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사합니다.

부상 : 상금 1억 원

의료인(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과 **의료단체**의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 역대 수상자

회	성명	소 속	공 적
1회	배현정	배현정 전진상 의원 원장	벨기에에서 온 파란 눈의 천사 달동네 사랑의 인술 40년
2회	오동찬	국립소록도병원 의료부장	편견의 병을 가진 한센인들의 20년 지기
3회	조병국	홀트아동복지회 부속의원 명예원장	소외된 6만 입양 아이들의 주치의
4회	김인권	여수애양병원 명예원장	걷지 못하는 소외 이웃 위한 외길 인생 33년
5회	한원주	매그너스재활요양병원 내과과장	청진기 든 91세 수호천사, 노인 환자의 어머니
6회	신완식	요셉의원 의무원장	영등포 쪽방촌의 슈바이처, 쪽방촌·노숙자 무료진료 10년
7회	이강안	청산도 푸른외중의원 원장	하루 120명 환자 돌보는 섬마을 슈바이처
8회	백영심	말라위 대양누가병원 간호사	아프리카 최빈국 말라위에서 약 30년 동안 의료봉사 중

■ 중외학술복지재단은

2011년 JW 중외그룹 이종호 회장께서 사재를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으로 생명존중의 정신을 계승, 전파하기 위해 장애인 복지 후원사업, 성천상을 통한 참다운 보건의료인 발굴, 기초과학연구자 지원, 장애예술가 작품공모전 후원 등 소외된 곳을 찾아 생명존중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 I. 수상 자격 제 9회 성천상 후보 요건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국적에 관계없이 국내외에서 의료봉사 업적을 이룩한 의료인 및 단체
 - 의료봉사 업적이 현저하여 사회적으로 귀감이 되는 의료인 및 단체
 - 추천마감일(2021. 3. 31) 현재 생존해 있는 의료인 및 활동 중인 단체
- II. 심사 기준 성천상 수상자(단체)의 심사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최고의 원칙으로 의료계의 존경받는 인사들로 구성된 성천상위원회를 통해, 다음의 항목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로 이루어집니다.

업 적 도	의료봉사의 실적 정도, 업적 수준, 지속 기간
기 여 도	의료복지 향상, 사회발전 기여도
난 이 도	업적 달성을 위한 열악한 환경조건, 오지, 음지 정도
평 판 도	의료계 및 사회복지 종사자 집단의 평판 및 지지 정도
기대효과	수상에 따른 사회공헌 확대 효과 정도
성 장 성	수상에 따른 수상자 역량 발전 가능성

III. 시상 성천상 수상자(단체)에게는 상패와 상금 1억 원이 수여됩니다.

IV. 심사 일정

2021년 1월	2021년 3월 31일	2021년 4월 ~ 6월	2021년 7월 ~ 8월
제 9회 성천상 후보 추천 요청서 발송	추천서 접수 마감	서류·현장·종합심사	발표 및 시상식

V. 추천서 제출

- 제출 서류
 - 1차 - 추천서 접수(*홈페이지(www.jw-foundation.or.kr)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 2차 - 업적증빙자료 접수(*별도 요청 시)
- 제출 방법 : 한글로 작성하여 e-mail로 제출(jwf@jw-group.co.kr)
- 문의사항 : 중외학술복지재단 사무국(T:02-840-6938)
- * 성천상 심사는 '추천서'가 접수된 후보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별첨)

〈제 1회 성천상 수상자 : 전진상의원 배현정 원장〉

東亞日報

2013년 07월 16일 화요일 A27면 투데이

40여년간 39만명 무료 진료 브라쉴르 원장, 성천상 수상

벨기에 출신 마리 헬렌 브라쉴르(한국명 배현정·67·사진) 전진상의원 원장이 제1회 성천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성천상은 JW중외그룹의 창업자인 고(故) 이기석 사장의 선공후사 정신을 기리고 참의료인을 발굴하기 위해 공익재단 중외학술복지재단이 제정했다.

브라쉴르 원장은 40여 년 동안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서 저소득층 39만 명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를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첫 수상자가 됐다. 상금은 1억 원.

브라쉴르 원장이 처음 한국 땅을 밟은 것은 1972년. 고향 벨기에에서 간호대를 졸업하고 국제가톨릭형제회 단원 신분으로 의료봉사를 하기 위해서였다. 고 김수환 추기경의 제안으로



1975년 시흥동 판자촌에 무료 진료소인 '전진상 가정복지센터'를 설립했다. 간호사로 의료봉사에 한계를 느껴 1981년 중앙대 의대에 편입해 가정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했다. 무료 진료뿐만 아니라 호스피스, 저소득층 학생 장학금 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해왔다. 1999년에는 서울시로부터 명예시민증을 받기도 했다.

심사를 총괄한 이성낙 성천상위원회 위원장(가천대 의대 명예총장)은 "이기석 사장은 1959년 당시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수액제를 국산화하는 등 국내 의약품 산업의 초석을 다지는 데 헌신했다. 브라쉴르 원장은 그런 이 사장의 정신에 가장 부합하는 참 의료인"이라고 평가했다.

시상식은 8월 28일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제 2회 성천상 수상자 : 국립소록도병원 오동찬 의료부장〉

朝鮮日報

2014년 07월 15일 화요일 A27면 사람들

한센인 소록도에서 '나홀로 의사' 12년

소록도병원 오동찬 부장 '성천賞'

조선대 치대를 막 졸업한 젊은 의사가 1995년 봄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 있는 국립소록도병원에 공중보건의로 지원했다. 난소암 말기이던 어머니가 극구 만류했지만, 아들은 "딱 1년만 근무하고 오겠다"고 했다.

아들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이후 20년째 국립소록도병원을 지켜온 오동찬(46) 의료부장이다. 중외학술복지재단(이사장 이종호 JW중외그룹 회장)은 제2회 성천상 수상자로 오동찬 부장을 선정했다. 성천상은 JW



중외그룹 창업자인 고(故) 성천 이기석 사장을 기려 지난해 제정됐다.

"공중보건의 1년 근무가 끝나도 집으로 가지 않

으니깐 어머니가 소록도로 찾아오셨어요. 제가 일하는 모습을 보시더니 '엄마 대하듯 환자를 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머니는 소록도를 다녀간 두 달 뒤 세상을 떠났다. 불과 7년 전까지만 해도 소록도병원에 그 말고는 다른 의사가 없었다. 치과의사인 그가 내과와 외과 치료도 맡았었다. 이영완 기자

<제 3회 성천상 수상자 : 홀트아동복지회 부속의원 조병국 명예원장>

東亞日報

2015년 07월 14일 화요일 A24면 투데이

반백년 6만여명 돌본 '고아들의 의사'

조병국 홀트아동복지회 병원 명예원장 '성천상' 수상

JW중외그룹은 50년 동안 6만 명이 넘는 고아를 보살펴 온 조병국 홀트아동복지회 부속의원 명예원장(82·사진)을 '제3회 성천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성천상은 고이식 중외그룹 창업자의 생명존중 정신을 기려 JW중외그룹의 공익재단인 중외학술복지재단이 의료복지 증진에 기여한 의료인에게 주는 상이다.

1958년 연세대 의과대를 졸업한 조 명예원장은 1962년부터 15년간 서울시립아동병원 소아과에 근무하며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다. 1976년부터는 홀트아동복지회 부속의원으



로 자리를 옮겨 6만여 명의 입양 예정 고아들의 건강을 챙겼다. 그는 아이가 입양가정에 보내지기 전 예방접종을 하는 등 아이가 건강한지 확인하는 역할을 주로 했다.

수상 소식을 전달받은 조 명예원장은 "상을 받을 만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아이를 돌보는 일이 어느새 삶의 일부가 되어서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시상식은 8월 24일 서울 중구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제 4회 성천상 수상자 : 여수애양병원 김인권 명예원장>

중외일보

2016년 08월 05일 금요일 023면 사설/칼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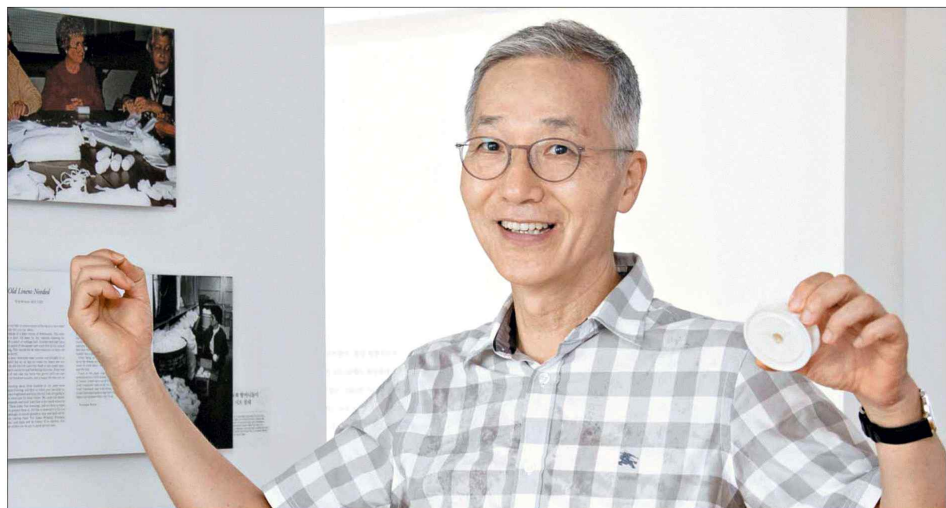


채인택의 직격 인터뷰 한센병 33년 헌신... 성천상 받는 김인권 명예원장

(여수애양병원)

"꿈꿨던 의사상 살아 있기에 주저 없이 한센병원을 택했다"

전남 순천에서 여수로 이어지는 17번 국도를 달리다 여수공항 뒤로 가면 여수애양병원이 나타난다. 남도의 외진 곳에 위치했지만 정형외과와 피부과로 전국적으로 이름 있는 병원이다. 이 병원의 김인권(65) 명예원장이 최근 제4회 성천상 수상자로 결정됐다. JW중외그룹의 창업자인 고이식 이기식 사장의 생명 존중 정신을 기려 읍지에 현신적으로 활동하며 의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사회적 귀감이 된 의료인을 발굴해 주는 상이다. 김 명예원장은 이 병원에서 한센병 환자의 사지교정 수술과 소아마비 환자의 재건·재활 치료에 헌신하고 인공관절 수술을 도입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정형외과 전문의인 그는 1980~83년 소록도에서 공중보건의로 일한 뒤 83년 이 병원에 부임해 평생 환자를 돌봤다. 한센병 환자에게 따뜻하게 손을 내밀었던 청년 의사는 이제 백발의 신사가 돼 취재진을 맞았다.



한센병·소아마비 환자와 장애인들을 치료해 온 여수애양병원 김인권 원장이 병원 역사를 설명하고 있다. 이 병원이 선교사들로부터 받았던 사랑과 헌신, 의학 지식을 제3세계에 전수할 꿈을 꾸고 있다. 광주=프리랜서 오종찬

<제 5회 성천상 수상자 : 매그너스재활요양병원 한원주 내과과장>

이해연리

2017년 07월 11일 화요일 024면

'성천상' 수상... 구순 현역 의사 한원주 매그너스 재활요양병원 과장

“아흔 넘어도 의료봉사할 수 있어서 감사”

“아흔이 넘어서도 누군가를 위해 봉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내 스스로 건강해야 하는 이유가 아닐까요? 다시 태어나도 의료봉사를 하며 살고 싶습니다. 내 삶의 밑거름이 만복입니다.”

구순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소외된 환자를 돌보는 의사가 성천상 수상자로 결정됐다. JW중의학술복지재단은 제5회 성천상 수상자로 한원주(91) 매그너스 재활요양병원 내과과장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한원주 과장은 1949년 경상여자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수련을 한 뒤 1968년에 서울 동대문구에 개원의원을 열었다. 편안한 삶이 보장되는 개인의 있지만 평소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료봉사에 관심이 많았다. 1979년에는 아예 병원 문을 닫고 한국 기독교의료선교회에 부설 의료선교의원에 취임하면서 전문적인 의료봉사에 나섰다. 그는 2008년까지 28년간 병서를 전임으로 삼아 영세한 노숙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을 돌렸다. 한 과장은 “아버지의 영향이 컸다”고 말했다. 한 과장의 아버지 역시 의사였

매일 10시간씩 노인 건강 관리
아예 병원 한쪽에 잠자리 마련
금요일까지 일한 뒤 일요일 복귀
“의사 소임했음...상받아 기뻐”



성천상

JW중의학술복지재단(회장) 성천 어가적 선생의 생애를 존경심을 가지고 응징하여 헌신적인 의료봉사활동을 통해 의료복지증진에 기여하면서 사회적인 국경이 되는 참 의료인을 발굴하기 위해 제정된 상.

다. 그는 일제시대인 1933년 경남 마산에서 병상을 폐결핵 비치와 급성 전염병 예방을 위해 펼쳤다. 이후에는 노후 자금만 남기고 병원을 모두 정리해 사회에 환원했다.

한 과장에 의료봉사에 열정을 매달리게 된 결정적 계기는 남편의 갑작스런 죽음 때문이었다. 한 과장은 “1978년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뒤 재물, 명예, 지위 등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 느껴질 정도로 심각한 우울에 빠졌다”며 “그러다 불면증 등을 앓고 있을 때 살려주고 있는 사람을 우연히 보고 ‘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자’고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단순히 질병만 돌본 것은 아니었다.

한 과장은 1982년 국내 최초로 환자의 정신과 완결까지 치료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는 ‘전인(全人) 치유진료소’를 열었다. 이곳에서는 의료혜택뿐 아니라 생활비나 장학금 등 지원에 자금을 도왔다. 의료봉사의 개념을 단순한 질병치료에서 자립과 재활로 넓힌 것이다.

한 과장은 82세이던 2008년 의료선교의원에서 은퇴한 후 매그너스 재활요양병원에서 내과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다시 청진기를 들었다. 지금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요양병원에서 노인들의 건강을 관리한다. 아예 병원 한 구석에 수소를 마련해 금요일까지 일 한 뒤 퇴근했다 일요일 밤에 병원으로 돌아온다.

이상나 성천상위원회 위원장은 “한원주 과장은 개인의 열정을 뛰어넘어 배운 아홉에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성을 배웠다는 점이 성천 어가적 선생의 생애를 존경심을 품고 부합한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한원주 내과과장은 “내가 가진 것을 나누기 위해 의사로서의 소임을 다했음 뿐인데 뜻하지 않게 영예로운 상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강경훈 기자 kangkyun@jw

<제 6회 성천상 수상자 : 요셉의원 신완식 의무원장>

매일경제

2018년 07월 24일 화요일 A32면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이 따르는 의사 선생님

신완식 요셉의원 원장 제6회 성천상 수상

10년째 무보수 의료봉사

‘영등포 슈바이처’로 불려

“봉사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작은 행동들을 이웃과 나누는 가운데 기대하지 않았던 많은 것들을 얻는 과정입니다. 대학교수직을 그만두고 이곳에 적응하는 게 처음엔 쉽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의료 사각지대에 있던 환자들이 다시 건강해져 사회 일원으로 자리 잡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신완식 요셉의원 원장은 올해 성천상 수상자로 선정된 소감을 이같이 밝혔다.

JW그룹 공익재단인 중의학술복지재단은 서울 영등포역 인근 쪽방촌 골목에서 의료봉사를 실천하고 있는 신완식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부설 요셉의원 원장을 제6회 성천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상나 성천상위원회 위원장은 “신 원장은 안정된 생활을 선택하는 대신 누구나 건강한 사회를 만드



신 원장은 가톨릭대 교수직 정년을 6년이나 남겨두고 명예퇴직을 선택한 후 2009년 요셉의원 의무원장으로 취임했다. 이후 10년째 노숙자, 알코올 중독자,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환자들에게 무보수로 의료봉사를 실천하고 있다. 신 원장은 “안정적인 길이었지만 대학병원 교수로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고 싶지는 않았다”며 “‘세상과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겠다’는 평소 신념을 실천으로 옮긴다면 조금이라도 일찍 시작하는 것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도 쉽고

환자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신 원장은 “요셉의원에서 일하면서 나 또한 얻은 것이 많다”며 “환자들 상처를 꿰매고 질병을 고치는 것만이 치료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처음 요셉의원에 왔을 때 환자들은 저를 신뢰하지 못했고 일부는 적개심을 보이기도 했다”며 “지금 상태가 이러이러하니 약을 바꿔야 한다고 말해줘도 당신을 어떻게 믿느냐며 기존 약을 달라는 환자도 있었다”고 회고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신 원장은 환자와 마음을 터놓고 서로 신뢰관계를 맺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가난하고 소외된 환자들이 가장 믿고 따르는 ‘의사 선생님’이 됐다.

신 원장 부임 후 요셉의원은 전산화된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의료장비를 현대화하는 등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앞장섰다. 또 음악 치료, 인문학 강의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환자들의 정신적 치유와 실질적인 자립을 위해 힘쓰고 있다.

김혜순 기자

<제 7회 성천상 수상자 : 청산도 푸른외중앙의원 이강안 원장>

朝鮮日報

2019년 07월 16일 화요일
A23면

하루 120명 환자 돌보는 '섬마을 슈바이처'

이강안 원장, 제7회 성천상 수상

“한두 해 정도만 봉사활동을 하다가 서울로 돌아가려 했는데 어느덧 10년이 넘었어요. 이제 죽을 때까지 여기서 의료 봉사를 할 생각입니다.”

전남 완도군 청산도에서 16년째 홀로 인술을 펼쳐온 이강안(83·사진) 푸른외중앙의원 원장이 15일 제7회 성천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JW중외그룹 창업자인 고(故) 성천 이기석 사장을 기리는 상이다. 중외학술복지재단(이사장 이종호 JW그룹 명예회장)이 주관한다.

섬 주민들은 그를 '청산도의 슈바이처'로 부른다. 이 원장은 2003년 은퇴할 때까지 서울에서 유명 외과의로 활동했다. 이듬해 푸른외중앙의원에 근무할 의사 없이 병원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내와 단둘이 청산도로 내려갔다. 완도에서도 배로 1시간을 가야 하는 오지다.

이 원장은 “생업으로 바쁜 주민들을 위해 오전 7시 40분에 진료를 시작한다”고 했다. 그는 간호사 1명만 있는 병원에



JW중외재단

서 하루 평균 120명의 환자를 돌본다. 여서도·모도 등 인근 섬까지 배를 타고 가 무료 진료 활동을 한다. 종종 환자 항문에 손을 넣어 관장하는 일도 그의 몫이다. 그는 “늙아바늘에 손을 찔린 사람, 물고기에게 물린 사람처럼 서울에선 볼 적 없는 환자를 돌보고 있다”며 “평생 저런 바닷바람 맞으며 일해 몸이 상한 노인들이 많아 주말에도 진료를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상금 1억원 중 일부를 유니세프 등 국제기구에 기부하고 나머지는 청산도 장학금으로 사용할 생각”이라고 했다. 시상식은 다음 달 27일 광주광역시 플리데이 인 광주호텔에서 열린다.

최인준 기자

<제 8회 성천상 수상자 : 말라위 대양누가병원 백영심 간호사>

매일경제

2020년 07월 21일 화요일 A32면

말라위에 싹트운 의료희망...간호대학도 세워

30년 의료봉사 백영심 간호사 JW중외재단 '성천상' 받아

스물여덟 꽃다운 여인은 우연히 아프리카를 찾았다가 간호사라는 자신의 직업이 사람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임을 깨달았다. 그때부터 그는 미련 없이 아프리카에서 살기로 결심했다. 이후 30년의 시간이 흘렀다. 지금도 그는 아프리카에서 '시스터'로 통한다. 현지인들이 가족 같으며 누나나 언니로 부르기 때문이다.

20일 JW중외재단 중외학술복지재단이 매년 국내 의료진 가운데 봉사정신이 투철한 이들을 뽑아 시상하는 '성천상'의 올해 제8회 수상자로 아프리카 말라위 대양누가병원에서 일하는 한국인 백영심 간호사(58)가 선정됐다. 그동안 7차례에 걸쳐 모두 의사들만이 상을 받았지만 올해는 처음으로 간호사가 수상자로 결정됐다. 성천상은 중외재단 창업자인 고(故) 성천 이기석 선생을 기리기 위해 2013년 제정된 상이다.

현재 제주도에 머물고 있는 백 간호사는 20일 매일경제신문과 전화 인터뷰에서 “더 많은 봉사를 하려고 이 상을 추진 것 같다”고 말문을 열었다. 제주한라대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1984년부터 고려대부속병원 간호사로 근무하기 시작한 그는 1990년 교회 선교봉사를 위해 아프리카 케냐를 처음 찾았다. 그곳의 열악한 의료 환경과 기아에 허덕이는 아이들을 보며 백씨는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케냐뿐 아니라 인근 말라위에 가보

28살 때 아프리카 최빈국으로 의사 아닌 간호사로 첫 수상

간이진료소 만들어 환자 돌봐
현지 대통령도 '시스터'라 불러
상금 1억원으로 학교 지을 것

니 그 나라는 인구수 대비 의료진 수가 세계에서 가장 적다는 걸 알게 됐어요. 말라위 아이들을 그냥 내버려둘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죠. 아예 여기서 살기로요.”

백씨는 1993년부터 말라위에서 거주하며 현지 의료 봉사를 시작했다. 남부 아프리카 간호 업무를 관할하는 남아프리카공화국 간호협회 주관 시험에도 도전해 현지 간호사 자격까지 얻었다. 그는 병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말라위에서 어떻게 하면 환자들이 좀 더 자주 병원을 찾을 수 있을지 고민했다. 그 결과 나온 게 바로 '간이진료소'다. 백씨는 교회와 일부 독지가들의 협조를 얻어 말라위에 이동형 간이진료소를 군데군데 지어가며 환자를 돌봤다. 현지 주민들과 흠뻑 땀을 맞으며 쌓아올리는 식으로 진료소를 만들었다.

백씨는 진료소에서 하루 100명이 넘는 환자를 돌봤지만 전문 인력과 의약품 부족이라는 한계 상황에 직면하고선 병원 건립을 전격 추진했다. 2008년 한국 내 기업의 도움을 얻어 현지에 대양



JW중외재단 중외학술복지재단이 제8회 '성천상' 수상자로 30년째 아프리카 의료봉사에 헌신한 백영심 간호사를 선정했다. 사진은 백 간호사가 2015년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현지 어린이를 안고 채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사진 제공=JW중외재단>

누가병원을 세웠다. 말라위 수도 릴롱웨에 들어선 이 병원은 현재 연간 20만 명을 치료할 수 있는 규모로 성장했다. 또 백씨는 2010년 대양간호대학까지 설립·운영하기 시작했다. 그는 “말라위는 영양실조도 심각했지만 주민들 대부분이 기본적인 예방주사를 접종하지 못해 여러 감염병에 취약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많은 힘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말라위 사람들은 백씨를 '시스터 백'으로 부른다. 그는 “내가 외국인이다 보니 현지인들도 처음엔 나를 '마담'이라고 불렀는데 그 호칭이 부담스러워 가족이나 친구처럼 여겨 달라고 했더니 그때부터 '시스터'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며 “지금은 말라위 대통령도 나를

시스터 백이라고 칭한다”고 전했다. 그는 말라위에 살면서 몇 차례씩 자신의 국내 거주지인 제주도를 오갔다. 올해는 3월 말 제주도를 찾았다가 이후 코로나19 사태로 하늘길이 막혀 여태 말라위에 못 돌아가고 있다. 백씨는 “코로나19가 열린 찾아들기를 누구보다 고대하고 있다”며 “그레이트 말라위로 다시 돌아가 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백씨는 이번 성천상 상금 1억원을 역시 말라위를 위해 쓸 생각이다. 그는 “현지에 학교를 짓거나 의약품 구입하는 데 이번 성금을 소중하게 쓸 예정”이라고 전했다. 백씨에 대한 성천상 시상식은 다음달 18일 서울 서초구 JW중외재단 본사에서 열린다. 서진우 기자